

# 광주 승리 날린 통한의 30초

K리그… 대구에 종료직전 동점골 허용 1-1 무승부

통한의 30초가 됐다.

광주 FC가 지난 7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K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무승부로 광주는 대구전 무패행진(2승2무)을 이어갔지만 마지막 30초를 지키지 못하면서 승리를 눈앞에서 날렸다.

광주 최민희 감독은 '오공축구(다섯 명의 공격수)'로 승부수를 끄었다.

장신 공격수 트리오 복이(201cm)와 박기동(191cm), 김동섭(188cm)이 전면에 섰고, 김은선과 이승기가 중원에서 공격 지원에 나서며 대구를 압박했다.

올 시즌 박기동의 부상으로 잠겼었던 박기동과 이승기의 힘비 플레이가 모처럼 빛

을 발했다.

전반 36분 박기동이 골에 어려어에서 원발로 힐 패스를 하며 이승기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박기동의 재치있는 움직임에 대구 골키퍼 박준혁이 자리를 비운 상태. 문전에서 공을 받은 이승기는 망설임 없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대구의 골망을 훔들었다.

2011 신인왕 이승기가 18경기 출전만에

터트린 자신의 시즌 첫 골이자 천금 같은 선

제골이었다.

지난해 8골2도움의 활약으로 신인왕에 등

극했던 이승기는 17라운드 전남과의 경기

에서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시즌 7

도움을 만들었지만 골맛을 보진 못했다.

대구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다.

대구가 16번의 슈팅(유효슈팅 5개)을 날리며 광주를 공략했지만 막혔 박호진을 중심으로 막내 이한샘까지 안정된 수비로 골문을 지켰다. 하지만 경기 종료를 눈앞에 둔 후반 48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대구의 프리킥 찬스에서 골키퍼 박호진이 펀칭을 해낸 공이 대구 송제현 앞으로 향했다. 박호진이 급히 몸을 틀었지만 송제현의 원발을 떠난 공이 그대로 광주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점수는 1-1이 됐다.

동점골과 함께 이내 주심의 종료 휴식이

울리면서 광주는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아시아 최강자 vs 펜싱계 슈퍼스타

## ■ 런던올림픽 라이벌

### 펜싱 남현희 vs 베잘리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플뢰레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남현희(왼쪽)와 베잘리./연합뉴스

### 상대전적 1승 8패 뒤져…‘맞춤 공격’으로 신장 차이 극복

아쉽게 패했으나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4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년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아 무대는 이미 평정했지만 세계를 제패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

현재 남현희를 제외하고 여자 플뢰레 세계 4위 앤 다른 선수들은 모두 펜싱 강국 이탈리아 출신이다. 특히 세계 1위인 베잘리는 남현희가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베잘리는 역대 올림픽에서 개인 최다인 5개의 금메달을 차지한 펜싱계의 ‘슈퍼스타’다.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에서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서 남현희를 상대로 역전 투슈(유효타)에 성공하며 6-5로 승리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13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남현희는 2006년 이후 베잘리와의 상대전에서 1승8패로 뒤져 있다. 가장 최근 대결인 지난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열린 월드컵 A급대회 4강에서 12-15로 역전패했다.

펜싱은 팔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종목이지만 남현희의 키는 155cm에 불과하다. 베잘리는 164cm.

남현희가 작은 키에도 정상급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 선수에 적합한 ‘맞춤 공격’을 구사하는 뛰어난 경기운영 능력과 거리조절에 있다. 남현희는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적절히 섞은 공격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먼 거리에서 상대하다가 어느 순간 바짝 거리를 좁혀 들어가 치르는 방식으로 체력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작은 키를 극복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 세계대학양궁선수권 한국 전종목 금메달

한국이 2012년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 리커브 전 종목의 금메달을 석권했다.

한국은 8일(한국시간)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남녀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경기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대 안세진과 장은빈·박새안(이상 계명대)이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16-11로 제압했다. 진재원(계명대)·성우경(인천대)·김봉만(한일장신대)은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19-14로 꺾었다.

또 김봉만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리춘황(대만)을 세트점수 6-0으로 완파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은 박새안이 팀 동료 장은빈을 6-0으로 꺾여 금·은메달을 따냈다. 혼성경기 결승에서는 진재왕과 장은빈이 폴란드를 11-9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오지은(한국체대)·박원영·윤재원(이상 순천대)은 캠퍼런드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흘린 땀과 메달색은 비례한다”

###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 고강도 훈련

박주영(아스널)이 합류한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이 체력 테스트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비яз음을 흘리며 사상 첫 메달의 꿈을 키워갔다.

홍명보(43)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7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펼쳤다. 와일드카드(23세 이상 선수)로 뽑힌 박주영은 이날 오전 일본에서 귀국, 곧바로 파주NFC로 입소해 대표팀에 합류했다.

정성룡(수원)이 소속팀 경기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몸살 기운이 있는 남현희(레퀴아)가 휴식을 취해 이날 훈련은 16명이서 치렀다.

모처럼 때감개 내리쬐는 햇살 속에 스트레칭과 가벼운 달리기로 몸을 푸는 선수들은 7명이 한 조로 간단히 퍼스게임을 한 뒤 체력

테스트에 들어갔다. 제자리밀리뛰기와 서전트 점프를 측정할 때까지만 해도 선수들은 여유가 넘쳤다.

하지만 회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공포의 왕복 달리기’에 들어가자 선수들 얼굴에서 곤 웃음기가 검했다. 선수들은 한차례 왕복할 때마다 10초 가량의 휴식시간을 두고 20m 거리를 점점 속도를 올려가며 오가는 이 훈련을 끝낼 아래에서 50차례나 소화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쉴 틈을 주지 않고 이후 한 시간이 넘도록 패스게임과 미니게임 등을 진행해 선수들의 손발을 맞췄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른 선수들이 마무리 회복훈련을 하는 동안 박주영과 단동원(선덜랜드), 김현성(서울) 등 공격수 세명은 흙 감독 등 코치진과 마지막까지 슈팅 연습을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연합뉴스

## ‘닥공’ 전남 드래곤즈, 용병 영입

전남 드래곤즈가 활력 강화를 위해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혜난(사진 왼쪽)과 플라비오를 영입했다.

183cm, 78kg의 혜난은 스피드와 측면 돌파 능력이 탁월하며, 플라비오는 178cm, 77kg로 끈기있는 플레이와 폐심력이 장점이며

골 결정력도 갖추고 있다.

전남은 좌우 측면과 전방을 소화할 수 있는 혜난과 새도우 공격수와 게임메이커를 병행할 수 있는 플라비오의 영입으로 골 결정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산행 안내

혜인·설상은(기자) 기자  
\*현제(설) 제제는 기준 사항입니다. 4/30일 이후는 복개

7월 10일(토)

▲광주산행스케치 경남 거창 현성/금성/기백산 유 ▲남도산사랑 대회 경기장 7월 10일(화) 0:00-20:00

▲광주산행스케치 경남 거창 현성/금성/기백산 유 ▲남도산사랑 대회 경기장 7월 10일(화) 0:00-20:00

▲광주산행스케치 경남 거창 현성/금성/기백산 유 ▲남도산사랑 대회 경기장 7월 10일(화) 0:00-20:00

7월 11일(일)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8일(수)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1일(토)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5일(수)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8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31일(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3일(수)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6일(토)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9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2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5일(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8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1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4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7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30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3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6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9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2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5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18일(금)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1일(화)

▲광주무등산악회 신안 임자도 불갑산 대관해수욕

7월 24일(금)</